

Focus

'23년 1분기 6대 전략광물 시장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금리인상 등 경기 하방리스크

최근 그린 에너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수출통제법” 제정으로 희토류 등의 가공처리 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원료의 자국산 또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으로 조달할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4차산업 핵심광물의 탈중국화를 위해 자원안보동맹(MSP)을 체결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수급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자원시장의 사이클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전망기능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한 결과 위험자산의 투자선호가 제약받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자원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진입유도로 자원 공급량도 점차 확대되면서 공급측면의 하방리스크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등 4차산업 신규수요 창출효과로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국제경제 환경 및 광종별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원시장의 사이클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최근 6대 전략광물 가격추이>

구 분	'22.Q1	'22.Q2	'22.Q3	'22.Q4	'23.Q1 (추정)	전년동기 대비(%)
동(달러/톤)	9,997	9,513	7,745	8,001	8,987	-10.1% ↓
니켈(달러/톤)	26,395	28,940	22,063	25,292	27,799	5.3% ↑
아연(달러/톤)	3,754	3,915	3,271	3,001	3,241	-13.7% ↓
철광석(달러/톤)	140.78	139.68	104.72	98.64	122.79	-12.8% ↓
유연탄(달러/톤)	251.45	356.34	415.53	369.43	275.45	9.5% ↑
우라늄(달러/파운드)	48.43	54.14	49.41	50.09	50.04	3.3% ↑

I 광종별 시장전망

(1) 동은 수요측면에서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점차 둔화¹⁾되면서 달러가치 하락으로 투자선호가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적인 측면에서 칠레, 페루 등 남미지역과 파나마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공급차질이 유발되면서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페루 Castillo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여파로 Las Bambas 등 대형광산들의 가동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칠레는 대형 노후광산들의 품위저하, 매장량 고갈, 용수부족 등의 문제²⁾가 나타났으며, 파나마도 First Quantum Minerals사와의 Cobre Panama 광산 로열티 계약이 협상 난항으로 광산가동까지 중단되면서 공급차질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 해제 이후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 정련동 수급 편더멘털도 공급과잉 전망에 따라 상기 가격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 1분기 전기동 추정가격은 톤당 9천달러에 근접할 전망이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10% 하락세이나, 전기대비로는 12.3%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련동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3년1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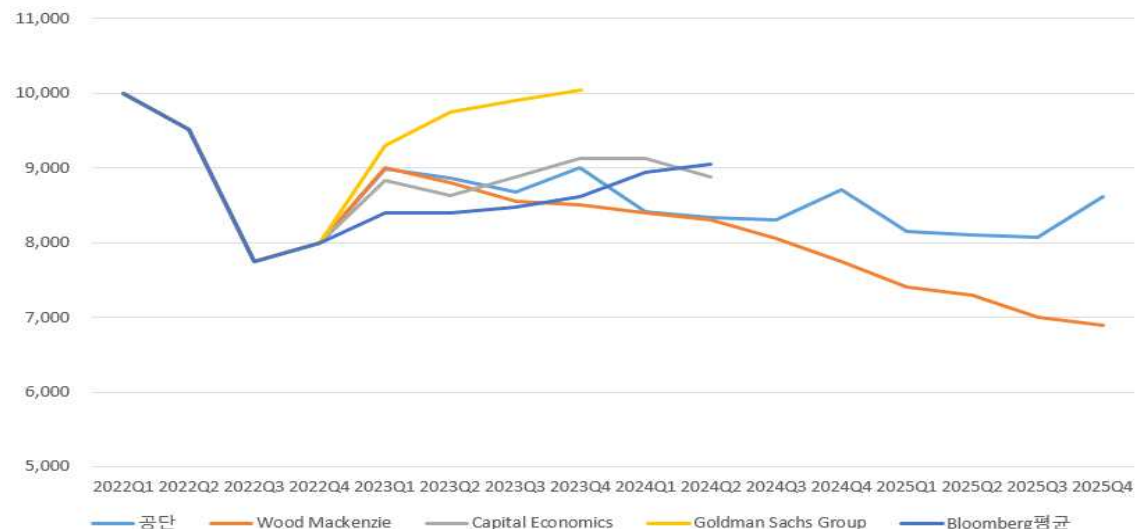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련동 공급	25,065천톤	25,695천톤	26,982천톤	27,981천톤
정련동 소비	25,034천톤	25,550천톤	26,457천톤	27,390천톤
편더멘털	공급과잉 (+30천톤)	공급과잉 (+144천톤)	공급과잉 (+525천톤)	공급과잉 (+591천톤)

1) 미연준은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07년이후 금리수준이 4.5%~4.75%로 최고수준을 경신하였으며, 7회연속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함

2) 칠레 국영기업 Codelco사의 '22년 동 생산량이 144.6만톤에 그치며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칠레 전체의 동 생산량도 533만톤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련동 시장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및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예상되며, 공급측면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Kamoakakula 확장사업, 페루 Quellaveco 확장사업, 칠레 El Teniente 등 노후광산들의 생산용량 확대, 인도네시아 Grasberg 광산의 갱내채굴 전환, 잠비아 Sentinel의 증산전망 등 대형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진입효과로 공급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공급과잉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Wood Mackenzie사는 '23년 정련동 수급펀더멘털이 공급과잉 144천톤으로 작년대비 과잉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전기동 가격전망 추이>



공단의 전기동 가격예측 모델은 미달러화 가치인 유로/달러 환율, 전기동 소비량 및 공급량 등이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및 세계 동 광산생산 확대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연준의 금리인상 종료시점과 중국의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전기동 시장의 하방리스크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전기동 가격은 신규/확장 프로젝트 진입확대로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며, '24년이후 톤당 8천불 중반선에서 가격회보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 단 (`23.02.22)	Wood Mackenzie (`23. 1월말)	Capital Economics (`23.02.02)	Goldman Sachs Group (`23.02.0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3.02.07)
2022Q1	9,997				
2022Q2	9,513				
2022Q3	7,745				
2022Q4	8,001				
2023Q1	8,987	9,000	8,840	9,300	8,399
2023Q2	8,870	8,800	8,625	9,750	8,400
2023Q3	8,680	8,550	8,875	9,900	8,483
2023Q4	8,996	8,500	9,125	10,050	8,612
2024Q1	8,413	8,400	9,125		8,946
2024Q2	8,344	8,300	8,875		9,050
2024Q3	8,309	8,050			
2024Q4	8,708	7,750			
2025Q1	8,151	7,400			
2025Q2	8,102	7,300			
2025Q3	8,069	7,000			
2025Q4	8,615	6,900			

(2) 니켈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원료 수요확대 및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에 따른 메이저 Norilsk사의 감산전망으로 수급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지속되면서 `23년 1분기 니켈 추정가격은 톤당 27,799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 상승, 전기대비 9.9%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1위 니켈 생산업체인 러시아 Norilsk사는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경제제재 단행 이후 물류 및 부품조달 문제로 인해 제련소인 Norilsk Nickel Harjavalta의 내년 가동률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니켈 생산량이 최대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인도네시아의 니켈제품 수출확대 추세³⁾ 및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기간종료에 따라 하방요인도 상존하여 상기 수급측면의 가격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금년 니켈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동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및 인도네시아의 니켈 정제련소 생산용량 확대전망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확대로 공급과잉분이 점차 축소되면서 상기 하방압력이 부분적으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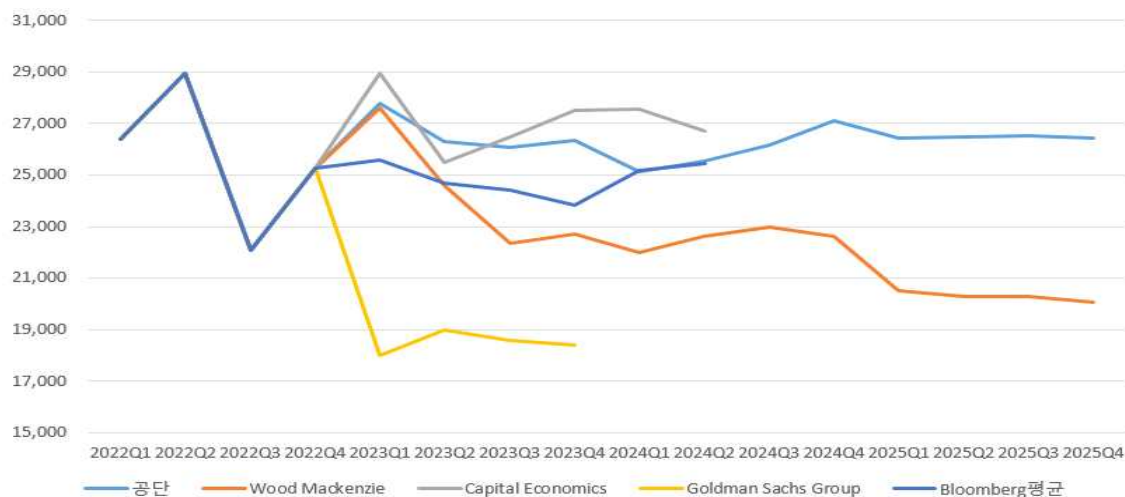
3)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 확대정책에 힘입어 `22년 인니의 니켈금속 및 다운스트림 제품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367% 증가함

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년 니켈소비는 3,319천톤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할 전망이다, 스테인리스용 소비가 2,121천톤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 배터리 전구체용 소비가 571천톤으로 전년대비 29.5% 급증하면서 소비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같은기간 니켈공급은 3,402천톤으로 전년대비 8.8%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용량 확대로 '23년 인니의 정제련 니켈생산이 1,795천톤으로 전년대비 24.0%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련니켈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3년1월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련니켈 공급	3,127천톤	3,402천톤	3,715천톤	3,948천톤
정련니켈 소비	2,938천톤	3,319천톤	3,703천톤	3,885천톤
편 더 멘 털	공급과잉 (+189천톤)	공급과잉 (+83천톤)	공급과잉 (+11천톤)	공급과잉 (+63천톤)

<주요 기관별 니켈 가격전망 추이>



따라서 니켈시장은 4차산업 신규수요인 배터리 원료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용량 확대로 인해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하방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메이저 Norilsk의 감산전망 등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에 따라 하방압력이 타광종 대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니켈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톤당 2만불 중후반선에서 보합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구분	공 단 (‘23.02.22)	Wood Mackenzie (‘23. 1월말)	Capital Economics (‘23.02.02)	Goldman Sachs Group (‘23.02.0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3.02.07)
2022Q1	26,395				
2022Q2	28,940				
2022Q3	22,063				
2022Q4	25,292				
2023Q1	27,799	27,609	28,940	18,000	25,575
2023Q2	26,312	24,618	25,500	19,000	24,695
2023Q3	26,070	22,340	26,500	18,600	24,426
2023Q4	26,354	22,708	27,500	18,400	23,851
2024Q1	25,156	21,973	27,563		25,192
2024Q2	25,520	22,634	26,688		25,437
2024Q3	26,186	23,002			
2024Q4	27,126	22,634			
2025Q1	26,419	20,503			
2025Q2	26,477	20,283			
2025Q3	26,543	20,283			
2025Q4	26,450	20,062			

(3) 아연의 경우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 종료에 따른 수요확대 전망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감소⁴⁾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둔화로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 선호 개선으로 상승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페루의 반정부 시위 여파로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산 공급차질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유럽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력난이 완화되면서 아연 제련소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정련아연의 공급부족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분기 아연가격은 톤당 3,241달러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3.7% 하락했으나, 전기대비로는 8.0%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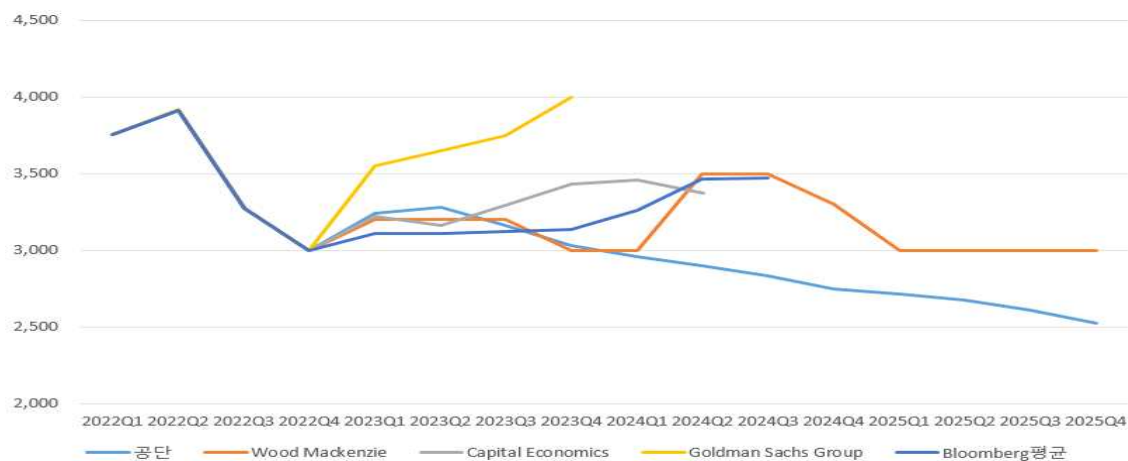
<정련아연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3년1월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련아연 공급	13,470천 톤	13,920천 톤	14,555천 톤	14,988천 톤
정련아연 소비	13,797천 톤	13,982천 톤	14,458천 톤	14,846천 톤
편 더 멘 털	공급부족 (-327천 톤)	공급부족 (-62천 톤)	공급과잉 (+96천 톤)	공급과잉 (+142천 톤)

4)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아연재고량은 2월1주차 기준 16,800톤으로 전주대비 8.9% 감소, 21주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23년 정련아연 소비량은 13,982천톤으로 주요국 금리인상 동조화에 따른 경기부진 여파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련아연 공급량은 13,920천톤으로 메이저 Nyrstar사 등 유럽지역의 제련소 생산량이 회복하면서 전년대비 3.3% 증가세 전망으로 소비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공급부족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4~'25년도 아연수급 편더멘털이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서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으로 아연가격은 완만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아연 가격전망 추이>



구분	공단 (‘23.02.22)	Wood Mackenzie (‘23. 1월말)	Capital Economics (‘23.02.02)	Goldman Sachs Group (‘23.02.0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3.02.07)
2022Q1			3,754		
2022Q2			3,915		
2022Q3			3,271		
2022Q4			3,001		
2023Q1	3,241	3,204	3,220	3,550	3,109
2023Q2	3,281	3,200	3,165	3,650	3,109
2023Q3	3,160	3,200	3,295	3,750	3,122
2023Q4	3,028	3,000	3,430	4,000	3,138
2024Q1	2,961	3,000	3,458		3,259
2024Q2	2,900	3,500	3,373		3,462
2024Q3	2,832	3,500			3,470
2024Q4	2,750	3,300			
2025Q1	2,713	3,000			
2025Q2	2,674	3,000			
2025Q3	2,608	3,000			
2025Q4	2,527	3,000			

(4) 철광석⁵⁾은 '21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환경강화로 조강생산의 원재료인 철광석 수요충격이 발생하면서 하방압력이 지속되었으나, 금년들어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및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둔화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선호 회복세에 힘입어 가격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1분기 철광석 추정가격은 톤당 122.7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8%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24.5% 반등하는 상황이다. 다만, 작년 세계 철강 생산실적 부진⁶⁾ 및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가동재개⁷⁾에 따라 상기 상승압력은 상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광석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3년1월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철광석 공급	2,374백만톤	2,415백만톤	2,441백만톤	2,435백만톤
철광석 소비	2,216백만톤	2,233백만톤	2,231백만톤	2,200백만톤
편 더 멘 털	공급과잉 (+158백만톤)	공급과잉 (+182백만톤)	공급과잉 (+210백만톤)	공급과잉 (+235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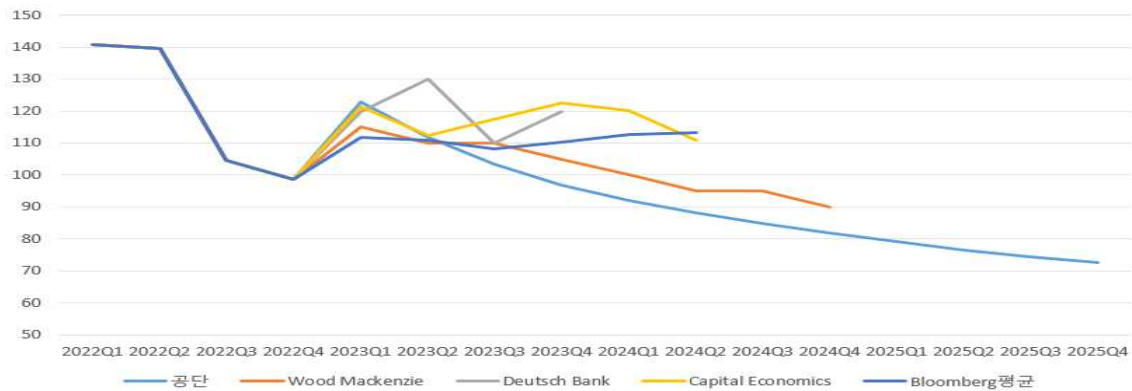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3년 철광석 수급편더멘털은 공급과잉 182백만톤으로 '22년대비 과잉폭이 24백만톤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철광석 소비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세계 경기둔화 우려로 철강생산이 제약을 받으면서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공급은 기니 Simandou 등 대형 신규프로젝트의 진입확대로 전년대비 1.7% 증가로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공급과잉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철광석 시장은 수요측면에서 전세계적 그린에너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중장기적 철강생산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도 Vale 사 등 메이저의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인해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광석 가격은 하향추세를 나타내면서 '23년 하반기에 톤당 100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철광석 가격기준 : 62% 분광 중국 수입가(CFR) 기준

6)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12월 세계 조강생산은 1억4,070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했으며, '22년 세계 조강생산은 18억3,000만톤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 여파 등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함

7) 호주 Fortescue Metals사의 Iron Bridge 프로젝트(36억~38억달러 투자규모)가 1분기 중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니 군사정부는 Simandou프로젝트의 조업이 3월중 재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주요 기관별 철광석 가격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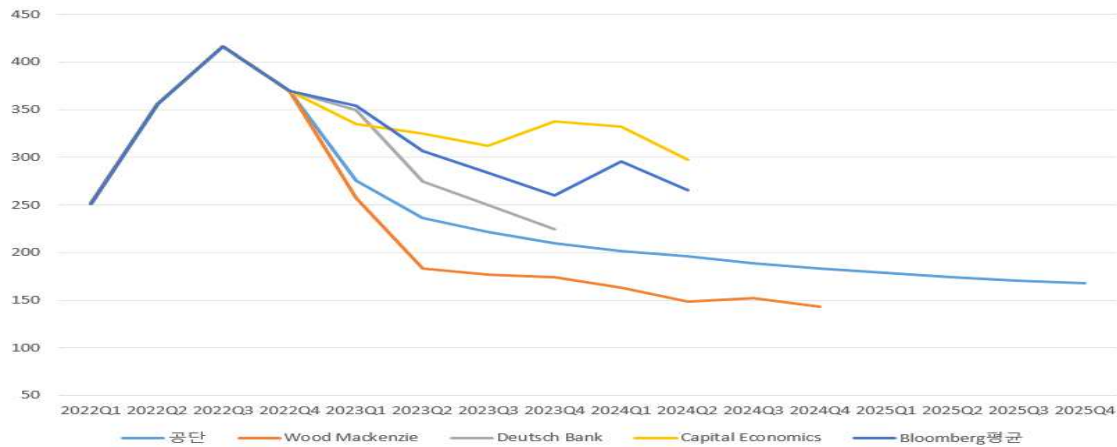


구분	공단 (‘23.02.22)	Wood Mackenzie (‘23. 1월말)	Deutsch Bank (‘23.02.06)	Capital Economics (‘23.02.02)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3.02.14)
2022Q1	140.78				
2022Q2	139.68				
2022Q3	104.72				
2022Q4	98.64				
2023Q1	122.79	115	120	121.50	111.76
2023Q2	111.87	110	130	112.50	110.88
2023Q3	103.44	110	110	117.50	108.21
2023Q4	96.92	105	120	122.50	110.32
2024Q1	92.21	100		120.25	112.71
2024Q2	88.23	95		110.75	113.15
2024Q3	84.85	95			
2024Q4	81.95	90			
2025Q1	79.08				
2025Q2	76.61				
2025Q3	74.49				
2025Q4	72.66				

(5) 에너지원 중 하나인 유연탄⁸⁾은 러시아발 에너지원 공급망 위기로 ‘21년부터 시장강세가 지속되었으나, 금년 동절기 들어 유럽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에너지원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22년 3분기 톤당 416달러까지 치솟았던 연료탄 가격은 ‘23년1분기 275달러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대비 25.4%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재개 조치로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상기 하방리스크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가격기준 : Intercontinental Exchange(ICE) 호주 뉴캐슬산 기준(globalCOAL NEWC Index) 6,000kcal/kg NAR

<주요 기관별 유연탄 가격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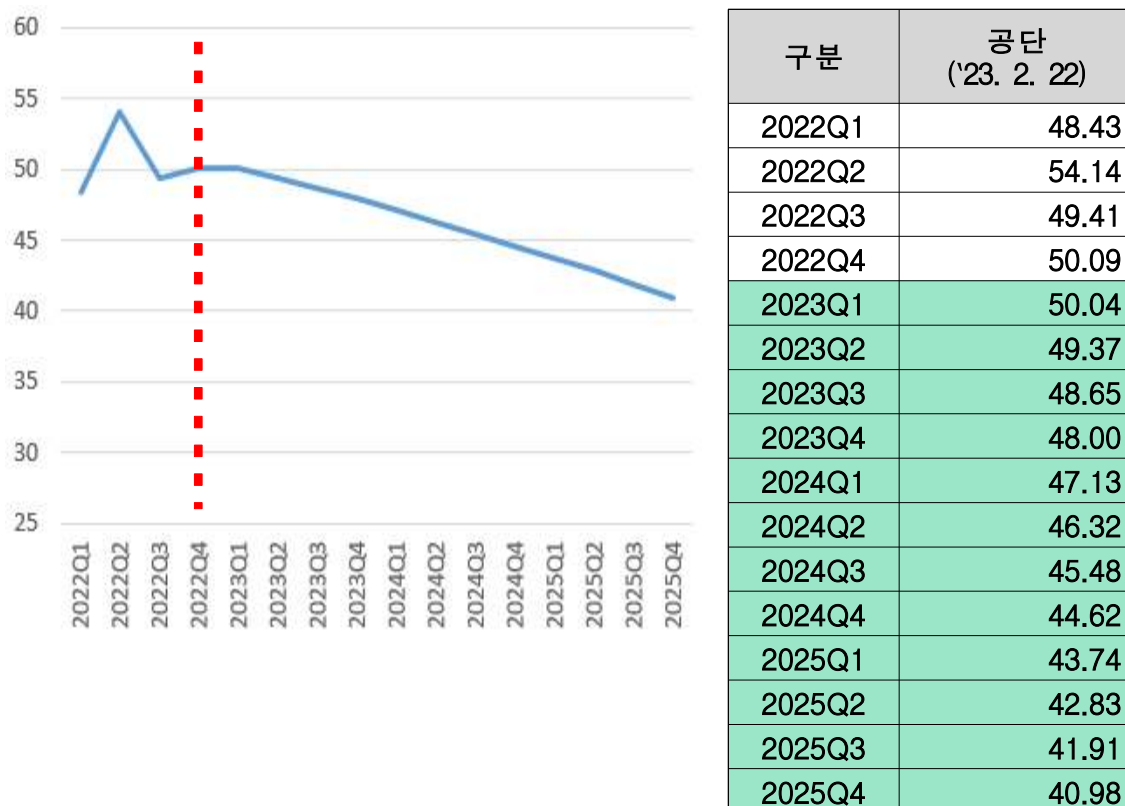
향후 연료탄 시장은 중국의 호주탄 수입재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그린에너지 경제전환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추세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수요가 제약받으면서 하방리스크 지속으로 가격하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3년 연료탄 해상교역 수출량이 9.97억톤으로 전년대비 43.2백만톤 증가하면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호주(18.3백만톤 ↑), 인도네시아(10.2백만톤 ↑), 카자흐스탄(14백만톤 ↑)이 공급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연료탄 가격은 '23년경 톤당 200달러 중후반선에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단 ('23.02.22)	Wood Mackenzie ('23. 1월말)	Deutsch Bank ('23.02.06)	Capital Economics ('23.02.02)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3.02.07)
2022Q1			251.45		
2022Q2			356.34		
2022Q3			416.00		
2022Q4			369.43		
2023Q1	275.45	257	350	335.0	354.58
2023Q2	236.56	183	275	325.0	306.37
2023Q3	221.40	177	250	312.5	283.87
2023Q4	209.98	174	225	337.5	259.96
2024Q1	201.89	163		332.5	295.42
2024Q2	195.81	149		297.5	265.42
2024Q3	188.99	152			
2024Q4	183.53	143			
2025Q1	178.37				
2025Q2	174.24				
2025Q3	170.93				
2025Q4	168.28				

(6) **우라늄**⁹⁾의 경우 작년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공급망 차질이 나타났으며,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의 원전비중 확대정책에 따른 우라늄 수요확대로 가격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유럽지역의 동절기 이상고온 현상으로 에너지원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력난 완화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년 1분기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50.04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전기대비 0.1% 감소로 시장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우라늄 가격은 직전 전망과 유사하게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의 완화 정도에 따라 등락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전망에 따라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라늄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파운드당 40달러 중후반대에서 박스권회보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가격전망(달러/파운드) 추이>



9) 가격기준 : Nuexco 현물가격지수 기준

※ 참고자료 : 연도별 해외기관 가격전망 (자료원 : Bloomberg 2월22일)

☐ 동

구 분	'23	'24	'25
Bloomberg평균	8,310	9,089	8,834
Capital Economics	8,875	8,750	8,625
Goldman Sachs	9,750	12,000	15,000
Wood Mackenzie	8,713	8,125	7,150

☐ 니켈

구 분	'23	'24	'25
Bloomberg평균	24,313	24,463	24,331
Capital Economics	27,100	26,250	24,750
Goldman Sachs	18,500	18,000	18,000
Wood Mackenzie	24,319	22,561	20,283

☐ 아연

구 분	'23	'24	'25
Bloomberg평균	3,145	3,177	3,171
Capital Economics	3,280	3,330	3,180
Goldman Sachs	3,738		
Wood Mackenzie	3,151	3,325	3,000

☐ 철광석

구 분	'23	'24	'25
Bloomberg평균	110.20	99.50	86.95
Capital Economics	118.50	106.00	68.13
Deutsche Bank	120	120	110
Wood Mackenzie	110	95	88

☐ 유연탄

구 분	'23	'24	'25
Bloomberg평균	306.43	226.95	160.95
Capital Economics	327.50	278.75	178.75
Deutsche Bank	275	200	130
Wood Mackenzie	198	152	